

차명계좌금지 이틀앞... “생계형도 처벌되나” 혼란

서민·중산층, 결혼·노후대비 자금 문의 쇄도

자산가들 현금·보험·금 눈길 ... 5만원권 품귀

내년 초 외아들 결혼을 앞둔 주부 김모(59)씨는 아들이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라고 7000여만원을 아들 명의 계좌에 넣어줬다. 남편의 돈이지만,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적금으로 넣어둔 차명계좌다. 김씨는 개정 금융실명제 시행에 앞서 은행을 찾은 문의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회사원 박모(44)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동창회의 회비통장이 ‘차명금지’ 위반인지를 문의하려고 은행에 전화를 했다. 5000만원이 넘는 데다 총무 앞으로 통장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의의 차명거래는 계속 허용된다는 설명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더라도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다면 무관하다는 것이다.

25일 차명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개정 금

융실명제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 등 금융현장에서 저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

차명금지 위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자산가들 중심으로 거액의 예금을 빼는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은행 담당자들은 결혼자금과 노후대비 등 일종의 ‘생계형 차명계좌’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자산가보다 오히려 서민·중산층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장의 혼선이 겹잡을 수 없게 되자 지난 21일 각 은행 실무자들은 은행 연합회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 명확한 ‘실명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 ‘면세 한도 이하의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은 실명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만기 이후 (본인 계좌로) 되

돌릴 목적은 예외’라는 내용이 모호해 금융위가 대통령령으로 해석을 정확히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 취지와 달리 자산가들의 ‘지하경제’로 도피가 가장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회피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자산가들이 보험·펀드 등 비과세 상품이나 현금 물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중 은행에서는 ‘5만원권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5만원권은 많지만, 시중에는 5만원권이 동났다. 최근의 5만원권 품귀 현상을 금융실명제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차명거래 금지가 기존 차명계좌를 해지하고 이에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수요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한 세무사는 “차명거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고객 자산가에게는 차라리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조언도 한다”며 “이들은 앞으로도 세원이 잘 노출되지 않는 현금

으로 금고에 증여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차명거래의 ‘실명 원상복구’로 2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 보험, 펀드, 금·현물에 대한 투자로 옮겨가는 추세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한 추세다.

금 거래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하루 평균 3.84kg이던 금 거래는 지난달 하루 평균 8.48kg으로 약 2.2배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가들이) 금 현물이나 현금을 은행 대여금고나 개인 금고에 넣어두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80.21 (+1.67)
- ▼ 금리 2.11% (-0.02)
- ▲ 코스닥 546.34 (+4.41)
- ▼ 환율 1109.10원 (-3.20)

광주 미분양 주택 186가구 ... 다시 감소세로

지난 10월 기준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 수가 다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광주의 미분양 주택 수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숫자를 나타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0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4만924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86가구로, 전월 268가구에서 82가구(30.6%)가 줄었다. 지난해 말 323가구였던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올 6월 117가구까지 감소했으나 7월 복구에 일부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며 657가구까지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열기를 타고, 8월 410가구로 감소한 뒤 9월 268가구, 10월 100가구대로 줄어들며 4개월 만에 100가구대로 재진입했다.

중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87가구)보다 48가구(55.2%) 늘어난 135가구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의 일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2678가구로, 전월(3031가구)보다 353가구(11.6%) 줄었다. ‘약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1420가구)보다 335가구(23.6%)나 감소한 1085가구로 조사돼 전남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924가구로 전월(3만9168가구)보다 924가구(2.4%)가 늘어난 4만924가구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 누리(sta.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볼 수 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4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차량 전달식'에서 박광식 현대·기아차 부사장이 최중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획단장에게 각각 대표들이 사용할 차량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행사에 기아차 K9 등 총 162대의 차량을 지원한다. <기아차 제공>

작년 기업들 1000원 팔아 39원 남겨... 금융위기후 최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매출액 증감률도 2010년 이후 크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2013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39.2원으로 전년보다 8.0% 감소했다. 이

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러들인 2008년(32.5원) 이후 최저치다. 통계청이 기업 활동조사를 시작한 2006년 1000원당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은 63.0원이었고 2007년 69.2원으로 올랐다가 2008년 32.5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2009년 53.3원, 2010년 62.3원으로 상승했지만 2011년 51.7원, 2012년 47.2원, 지난해 39.2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과 운수업의 지난해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은 각각 -33.5원, -17.8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가계빚 31조5732억 ... 또 사상 최대치

전년동기보다 2조 증가 ... 소비 위축 우려

광주·전남의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분기 중 가계 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31조 57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조

262억원(7.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1%포인트보다 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가계의 부채 상황을 지표화한 가계신용은 은행권의 예·대출금 판매 증가 등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4분기의 증가폭이 가장 높는데 이례적인 경우다. 특히 가계부채의 50% 이

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총 17조34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조 2173억 보다 1조1303억원(7.0%포인트)이 늘었다.

이처럼 올해 초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된 것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됐고, 8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저

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 효과가 지속하면서 가계대출 확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부진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인 가계신용은 지난 9월 현재 전국적으로 106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 2.1%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은 광주전남본부, 오늘 지역경제 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오후 3시부터 본부 1층 강당에서 ‘광주지역 인적자본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주지역의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인재유출 예방을 위해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인적자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호 전남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1부 주제발표와 2부 지정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찬영 전남대 경

영대 교수가 ‘광주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인재유출 예방을 통한 인적자본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지역 고용시장 및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섭 연구실장(광주발전연구원), 정윤선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지역발전센터), 최종일 교수(조선대), 허익배 정책관(광주시 투자정책국), 이병두 팀장(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원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산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오피스텔 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텔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 -> 1억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

062)527-7600

경매 무료 교육

운암점 챔피언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시대
교육화 실천가능

010-6832-9700
062)513-4900

경매 무료 교육

상무지구 12월 1일

12월 1일 오픈(상무지구)

최고의 실전반 모집중

010-6670-9800
062)382-55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서구 화정동 (토 171㎡, 건 501㎡) 감평가 2억7천 최저가 1억9천
②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③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11억
④ 서구 치평동 (토 1599㎡, 건 17380㎡) 감평가 223억 최저가 156억
⑤ 광산구 쌍암동 (건 328.72㎡ 지분매각) 감평가 1억9천 최저가 2천2백

광주 시외지역

① 목포시 산정동 (토 1045㎡) 감평가 7천4백 최저가 4천1백
②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③ 목포시 무안동 (토 72㎡, 건 115㎡) 감평가 1억 최저가 7천

토지

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평가 45억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② 광산구 송치동 (토 786㎡) 감평가 7천4백
③ 광산구 송정동 (토 35㎡, 지분매각) 감평가 1천 최저가 240만

특수물건

① 서구 광천동 (토 235㎡, 건 980㎡) 감평가 7억8천 최저가 4억3천
② 북구 신안동 (토 480㎡, 건929㎡) 감평가 8억 최저가 5억6천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952-5584